

먼 이국 땅에서
접시꽃에 절망을
신고



기태완

사흘을 연이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된 것일까요? 무료한 나머지 베란다 창밖으로 비를 구경하다가 문득 한 무리의 꽃들을 보았습니다. 접시꽃! 언제부터 피어 있었던 것일까요. 빗속에 활짝 핀 난데없는 꽃무리가 와락 반갑습니다. 사람 키를 넘는 흰칠한 줄기는 마치 장대들을 세워 놓은 듯한데 손바닥만한 꽃들이 수도 없이 매달려 있군요. 진홍, 분홍, 노랑, 흰색의 다채로움이 어찌 보면 몹시 아단스럽습니다. 우리의 꽃노래 '화편花篇'에서 왜 접시꽃을 무당이라고 하였는지 알 듯하군요. 그 울긋불긋한 복색이 영락없는 무당의 모습입니다.

접시꽃은 득두화 혹은 어송화라고도 하는데, 한자 이름으로는 축규화蜀葵라고 부릅니다. 축규화라는 이름으로 짐작하건대, 그 원산지가 중국 남방의 촉蜀 지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나는 축규화를 볼 때마다 그 옛날 먼 이국의 땅에서 절망했던 한 지식인의 절규를 듣습니다.

寂寞荒田側	적막하고 황폐한 밭가에
繁華壓柔枝	수많은 꽃들 부드러운 가지를 누르고 피었네
香經梅雨歇	장마에 향기는 없어졌는데
影帶麥風歇	꽃 그림자는 보리 바람에 기울어 있네
車馬誰見賞	수레와 말 탄 사람 누가 보고서 완상하겠는가?
蜂蝶徒相窺	벌과 나비만이 엿볼 뿐이네
自慚生地賤	스스로 태어난 곳이 천함을 부끄러워하며
堪恨人棄遺	남들에게 버림받음을 한스러워하네

신라의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 857(헌안왕 1년-?)이 당나라에서 읊은 <축규화蜀葵> 시입니다. 고운은 12살의 어린 나이에 당나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영암 월출산 포구에서 상선을 타고 당나라로 떠나는 어린 고운을 전송하며 그 부친은 “십 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 가서 힘써 공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운은 상투를 천장에 매달고 허벅다리를 송곳으로 찢러대며 겨를없이(懸刺無暇) 공부하여 마침내 18살에 빈공과賓貢科에 장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곧바로 선주宣州 율수현위 溧水縣尉가 되어 치적을 쌓아서 승무랑시어사내공봉承務郎侍御史內供奉이 되었고, 황소黃巢의 난 때는 고변高駢의 종사관으로서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을 지어 문명文名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28세 되던 해 그는 결국 귀국을 결심하게 됩니다. 아마도 외국인으로서의 한계를 실감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평민출신으로서 골품제骨品制라는 신라사회의 엄격한 계급적 한계를 뛰어넘어 큰 포부를 펴고자 유학을 하였지만, 당나라에서 그의 처지는 결국 변방 소국 출신의 한 이방인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고운은 <축규화> 시에 당시의 절망을 실어 놓았습니다. 황폐한 밭가에 핀 접시꽃은 바로 고운 자신의 처지입니다. 수레와 말을 탄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은 접시꽃에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단지 벌과 나비만이 돌아볼 뿐이지

이 글을 쓴 기태완은 중앙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국문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한국한문학 전공)했다. 현재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원, 홍익대 겸임교수로 있다. 저서에 <黃梅詩研究>, 역사에 <東語話>《精言妙選》《高宗辛丑儀軌》 등이 있다.

요. 그래서 출신이 천한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사람들로 부터 버림받는 것을 한스러워할 따름입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결국 고운은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세로 치닫고 있던 조국의 현실 또한 그를 용납하지 않았습니 다. 국제적 지식인으로서, 쌓은 지식과 경험으로 조국 신라에 공헌하려고 하였 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질시와 모함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을 떠나 지 방관으로 떠돌던 그는 마침내 벼슬을 버리고 은거의 길을 택하고 맙니다.

狂奔疊石吼重巒 칩칩 바위 사이를 치달리며 봉우리에서 울부짖으니
 人語難分咫尺間 사람 말소리 지척에서도 분간할 수 없네
 常恐是非聲到耳 항상 옳으니 그르니 하는 소리 들릴까 두려워
 故教流水盡籠山 일부러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 놓았네

(최치원,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합천 해인사로 가는 홍류동紅流洞 골짜기의 암벽에 새겨져 있는 고운의 시입니다. 골짜기 물이 쿵쿵 쏟아져 그 요란한 소리 때문에 지척에서도 사람의 말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고운은 그것을 세상의 시비 소리 들릴까 두려워 일부러 온 산을 골짜기의 물로 둘러놓 았다고 적었습니다. 요란한 물소리로 속세의 시비를 영원히 차단시키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 시의 행간에 넘쳐나는 분노와 절망은 그의 은거가 결코 스스로 원 하는 바가 아니었음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 줍니다.

어지러운 정치현실을 떠나 지리산과 해인사 일대를 배회하였던 고운은 이곳저곳에 많은 전설만을 남겨 놓은 채 영원히 말년의 행적을 감추었습니다. 한 전설에 의하면 그는 신선이 되어 학을 타고 선계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누가 말했던가요. 신선이란 세상에서 버림받아 산수간에 노닌 사람일 뿐이라고.

그런데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들어서자 사람들은 다시금 고운을 속세 로 끌어들었습니다. 《삼국사기》에 “처음 우리 태조(왕건)가 일어났을 때 최치 원은 비상한 인물이 반드시 천명을 받아 개국할 것을 알고, 글월을 보내 문안하 면서 ‘계림(서라벌)은 누런 잎이요 곡령(개성)은 푸른 숲(鷄林黃葉, 鶴嶺青松) 이라’ 하였으며, 그의 문인들 가운데 국초에 내조하여 고관에 이른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었다. 현종顯宗이 왕위에 있을 때 최치원이 은밀히 태조의 시업을 협 찬하였으니 그 공을 잊을 수 없다 하여 교서를 내리어 내사령內史令을 증직하 였으며, 14년 태평太平 2년 임술 5월에는 시호를 추증하여 문창후文昌侯라 하 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민망한 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국이 자 신을 버렸다 하여 어찌 고운이 반란군과 은밀히 내통하였겠습니까? 또한 신선 이 어찌 속세의 흥망사에 관심을 두었겠습니까? 이는 모두 속세인들의 필요에 따른 날조에 불과한 것으로서 참으로 신선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에 젖은 접시꽃을 바라보면서 신선이 되어서까지 모욕을 당한 고운 의 불우한 생애를 생각하며 나는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

